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아토피 증상에 대한 실태조사

신길란¹ · 김양원²

1.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2.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Survey on Living Habits and Atopy Dermatitis Symptoms for Korean collegians

Gil-Ran Shin · Yang-Weon Kim

Dept. of Beauty and Health Management, Daejeon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Business, Daejeon University

1. 서론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까지는 아토피피부염의 발생빈도가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약 3% 정도로 보고 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린이에서 20% 이상, 성인에서도 1-3%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대개 유·소아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특징이 있으며, 자각 증상으로 심한 소양감을 호소하고, 발병 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병변의 분포와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발병 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이 질환을 진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임상에 의한 진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박준희,2004). 그간 국내에서는 한국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 유발요인(안용섭, 2006; 박지은, 2004)과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 임상병력의 진단적 중요성(이동원등, 1997), 아토피 피부염환자의 봄. 여름용 니트웨어의 쾌적감(공진희, 2006)에 관한 연구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아토피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대학생들이 아토피로 인해 정신적인 불안감과 대인 기피현상을 보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까지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기초실태 조사, 이들의 생활습관, 발병경로, 유전적 요인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에 관한 가족력, 생활습관, 아토피 자각증상 등을 조사하여 20대

대학생들의 아토피 원인과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007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개월 동안 아토피성 건조와 피부질환이 있다고 조사대상자가 응답했고, 연구자가 아토피성 건조와 피부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총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5세, 신장은 163cm, 체중은 52.9 kg, 체표면적은 1.51m²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1980년 Hanifin과 Rajka가 제안한 아토피 증상과 이동원 등(1997)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질문지를 만든 후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도구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아토피에 관한 가족력, 주거환경, 아토피 증상, 아토피 발생부위, 생활습관 등 아토피피부염 진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χ^2 -test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활습관

아토피증상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은 38.5%가 '아침을 거른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17.7%는 외식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횟수는 10회 이상 즉 일주일에 2회 이상이 23.7%였다. 수면습관은 42.6%가 '늦게 잔다'

고 응답하였으며, 25.6%는 잠에서 자주 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아토피증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아침을 거르며 늦게 자는 것이 아토피를 발현하는데 도움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2. 아토피 증상과 부위

조사대상자의 29.2%는 가족 중에 아토피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형제들에게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아 후천적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환경적 요인이 아토피 증상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아토피 증상 발현 시기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가 골고루 분포하였다.

거친 직물로 된 의복 착용시 46.5%가 가렵게 느껴 가장 많았고, 열감 증상은 체온이 높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햇빛에 나갔을 때 50% 전후가 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끔거리는 증상의 경우도 거친 직물로 된 의복 착용시 가장 많이 느꼈다. 아토피 발생부위는 복수응답을 하게 한 결과 상반신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가장 높아 51.4%였고, 주로 가슴과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은 두부와 경부가 39.4%, 하반신이 26.3%로 나타났다. 김계정 등(1983)은 아토피를 보이는 부위는 팔꿈치와 무릎의 굴측부가 각각 50.0%, 45.3%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피부건조증을 보이는 시기는 가을과 겨울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이상이었다.

3.3. 의복과 아토피 증상

어떤 소재의 옷이 피부에 쾌적한가란 설문에서는 총 응답자 135명 중 99명이 면으로 된 의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명만이 마소재로 된 의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동원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소아와 청·장년기 아토피 환자군에서 보프라기 의류에 의한 소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김계정 등(1983)의 연구에 의하면 양모제제와 합성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양모, 합성섬유, 모직류의 옷은 가급적 피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전에 거주하는 아토피 증상을 가진 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아토피 증상에 관하여 2007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아토피 증상을 가진 사람의 38.5%가 아침을 안 먹고 늦게 자는 사람이 42.6%였으며, 거친 직물로 된 의복을 착용했을 경우 가장 가렵게 느꼈고 따끔거린다고 응답하였다. 열감증상은 체온이 높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햇빛에 나갔을 때 주로 느꼈다.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가슴과 등이 가장 많았고, 피부건조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가을과 겨울사이였다. 이로부터 식습관이나 수면습관을 고치고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면으로 된 의복을 입으면 아토피 증상이 완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공진희(2006).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봄, 여름용 니트웨어의 쾌적감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박준희(2004). 성인에서 생활습관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지은(2004).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생활양식 차이.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안용섭(2006).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주거환경에 따른 임상증상의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 5) 이동원(1997), 설문지를 통한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 임상병력의 진단적 중요성에 관한연구, 대한피부과학지 35(3).
- 6) 장호선(1997).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 가정의학회지, 23(7).
- 7) Hanifin JM, Rajka G(1980), Diagnostic features of atopic dermatitis. Acta Derm Venereol (stockh).